

## F1 방관·과학벨트 무관심·KTX 무대책 전남 국회의원들 뭐하나

전남 국회의원들 바라보는 민심의 눈초리가 따갑다.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3선 이상 중진인 전체 11명의 의원 가운데 5명이나 되는데도 지역 민심을 결집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의 '물갈이'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 국회의원들은 최근 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 정치적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올해 F1 대회(포틀러 원 국제 자동차 경주 대회)와 관련, 정부의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전남 국회의원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와 소통과 공조를 통해 F1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기 보다는 방관자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이 지

난 11일 임시국회 대정부질의를 통해 F1 대회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 김황식 국무총리로부터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전남 국회의원들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여수 엑스포 간선도로 확장 사업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나서 정부 예산 270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한 전남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국제과학벨트(과학벨트) 유치에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호남권 과학벨트 유치위원회 긴급회의에는 유선호·이윤석 의원이 얼굴만 비쳤을 뿐 나머지는 참석하지 않았다.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의 신설 노선 포기와 관련해서도 전남 국회의원들은 지역 민심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남 서남권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고속철도 계획에

'호남 차별'이라며 적극 반발하고 있으나 동부권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남 국회의원들의 소동 및 정치적 부재 등으로 전남 민심의 결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남의 현안에 대한 지역 민심의 온도차는 향후 지역 동질감마저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전남지역 11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3선 이상이 5명이나 되고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에 삼임위원장도 2명이나 되지만 지역 민심을 결집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이처럼 전남 국회의원들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남 국회의원들은 다선이 많은데도 중량감에 비해 별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



세계 슬로길 1호로 공식 인증된 완도 청산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17일 돌담길을 걸으며 화창한 봄 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청산도의 봄을 상징하는 유채꽃은 오는 20일 전후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청산도 '세계 슬로 길 1호' 됐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인 완도군 청산도 '슬로 길'이 국제슬로시티연맹(cittaslow International)으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다. <관련기사 10면> 전남도는 지난 16일 완도 청산도에서 선포식을 갖고 국제슬로시티연맹의 세계 슬로길 1호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국제슬로시티연맹 손대현 부회장은 이날 김종식 완도군수에게 인증서를 전달했다. '풍경에 취해 걸음이 저절로 느려진다'는 청산도 슬로 길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야기가 있는 생태 탐방로'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세계 슬로 길 1호'인증을 통해 명품 길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슬로 길은 총 42.195km(100리), 11개 코스(17길)로 이뤄졌으며 완도군은 노란 유채꽃으로 섬 전체가 물든 청산도에서 지난 8일부터 23일간 '느림은 행복이다'라는 주제로 슬로우 걷기축제를 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세계 슬로 길 1호 선포와 청산도 슬로우 걷기 축제를 통해 청산도 슬로 길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경북 영천 돼지농가서 또 구제역

경보단계 하향 4일만에 발생 농식품부는 17일 경북 영천 돼지농장에서 16일 구제역 의심 증상을 내보치는 지역민들도 적지 않다. '내 집 안방에서 열리는 남의 잔치'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구제역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할지 4일만에, 또 구제역 감염 우려에 대한 마지막 살처분이 이뤄진 지 26일만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결과, 이번엔 영천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급원에 전국에서 발생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0형 혈청 구제역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경상북도에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406호  
전화 : 062-225-2275 / 팩스 : 062-226-2275

VITAL LO는 변혁과 도전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 한국 합금계의 미래를 열어가는 바이탈로

믿을 수 있는 기업  
**VITAL LO**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금로별 금용위기를 맞아 사회 전반에 걸쳐 불황이 확산되고, 기업들의 생존전략이 최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의료계 역시 생존과 성장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고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양질의 합금생산 방법에는 첫째로, 시장상황과 경제적 고려 없이 순금만 높여 제조하는 기존의 방법과 둘째로, 보다 경제적으로 질이 우수한 여러 금속의 조성조항으로 제조되는 첨단금속공학 기법이 있을 것입니다.

고민 끝에 가격은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품질의 특성에 버금가는 아주 경제적인 제품개발을 시작하여 반복실험과 산고 끝에 VITAL ALLOY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경영효율화(원감절감, 신기술개발, 설비자동화, 유통구조개선 등)를 통해 고객 최우선의 경영을 지향하고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www.vdental.co.kr

VA460 Dental Casting Gold Alloy  
VA480 Q & B Dental Casting Gold Alloy

## F1에 인색한 국내 대기업들

해의 스포츠대회는 잇따라 후원 '대조'에도 불구하고, '내 집 안방'에서 열리는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인 F1(포틀러 원) 코리아 그랑프리에 대한 국내 대기업의 후원은 거의 없다. LG전자가 F1 대회의 글로벌 파트너 자격으로 참여하는 게 전부다.

특히 F1 대회가 첨단 자동차 기술의 경연장으로서, 전 세계 내로라하는 자동차 업체들이 자존심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의 대회에 대한 관심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많다. 국내 기업들이 해의 유명 대회 후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서운함을 내비치는 지역민들도 적지 않다. '내 집 안방에서 열리는 남의 잔치'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의 브랜드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스포츠 마케팅' 당 관람 인파가 20만명에 이르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다. 삼성전자가 지난 2007년부터 단독 후원하는 텍사스 대회는 나스카의 36개 경기중 2번째로 큰 규모로, 미국 내 4대 메이저 자동차 경주중 하나다.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도 스포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아차의 경우 최근 남미 월드컵이라는 '코파 아메리카 2011(Copa America 2011)'대회를 후원키로 했고 아울러 '호주오픈 테니스대회(Australian Open)'메이저 스폰서 기간을 연장하는 등 글로벌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의 브랜드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스포츠 마케팅'

VITAL LO Dental Gold Alloy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406호  
전화 : 062-225-2275 / 팩스 : 062-226-2275